

## 건설산업기본법 공청회 유감

Public Hearing on  
Construction Industry-Basic Law

- 건축설계업무, 건설업인가! / 김영석
- 우리의 나아갈 길 / 유경철
- 늑대여, 다람쥐여, 토끼여, 노루여! / 이충기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 건설업의 경쟁력 제고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건설교통부가 입법추진중이었던 건설산업기본법(안)에 대해 각계의 여론을 수렴키 위한 공청회가 국토개발연구원의 주최로 지난 8월 6일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본지 96년 9월호, 27쪽 참조)

이날 열린 공청회에서 우리 협회를 비롯한 건축계는 입법추진중인 건설산업기본법(안)에 대해 건설업의 정의에 건축설계를 포함시킨 것은 건설업계가 설계를 겸업하기 위한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강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본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본지 사정상 공청회가 열린 시점인 지난 9월호에 게재하지 못했던 건설산업기본법(안)과 그밖에 건축 관련 법체계의 모순점에 대해 회원의 입장에서 기고한 글들을 모아 게재코자 한다.

(편집자주)

## 건축설계업무, 건설업인가!

김영석 / 극동영건축, 본 협회감사  
by Kim Young-Suk

작년 6월 29일 세계적인 도시인 서울 한 북판에서는 지은지 6년 된 백화점이 순식간에 붕괴되는 대참사가 일어났다. 이 소식은 일파만파 세계로 세계로 전파되어, 세계인이 경악을 금치 못했던 기억하기조차 끔찍한 초대형 참사였다. 이를 계기로 세계언론 중에는 한국발전의 실상이라고 총체적인 비평을 하는 데도 있었다.

우리의 경제적 부흥이 이같이 기초가 부실하고 제대로 내용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허울만 그럴싸하다는 이야기다. 참으로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일면 공감아가는 부분이 적지 않다. 급기야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을 수립한다며 건설제도기획단을 발족, 건설제도 전반을 손대기 시작한 것이다.

그 후 약 1년여 동안 만든 입법안이 '96. 8. 6일자로 건설교통부 후원, 국토개발연구원 주최로 건설업법 개정법률(안)이 건설회관 회의실에서 "공청회"란 이름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당초의 부실방지 입법 취지와는 다른 건설산업기본법 배경 설명에서 건설공사의 종류에 따라 13개 법률이 각기 다르고 6개 부처로 다원화 되어 법체계를 단순화하여 건설업자들의 불편해소와 WTO 출범에 따른 국내건설업 경쟁력 강화, 건설업 육성 방안으로 "건설산업 기본법(안)"을 제시하고 있다.

전문의 제1조와 2조 목적 및 정의에 의하면 건설업의 주 업무인 건설 시공외에 건축사업무(조사, 설계, 감리, 유지관리 등)를 추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건축사업과 건설업은 분명히 현행 기존법에 의거 독립된 사단법인으로 "대한건축사협회"와 "건설협회"를 설립하고 각기 수천명의 회원을 갖고 서로 다른 가치관으로 30~40년전부터 현재까지 존속 유지하여 국내외에 널리 맡은 바 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현실에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근래에 대형공사의 사고가 날때마다 그 원인을 정부는 자기 탓이 아니고 남의 탓으로 돌리고 오로지 옥상옥(건설기술관리법 등)으로 법을 만들어 온 것이 버릇처럼 되어왔기 때문에 법이 너무 많고 해당 관련업에 따라 주무 부처가 법의 특성별로 다원화되어 있어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므로 이런 불편해소를 위해서라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법을 단순화해야 한다는 법 취지와는 논리가 전혀 맞지 않고 오히려 불필요한 법이 또 하나 추가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당초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강구하여 다시는 이땅에 부실공사로 인한 참사가 재현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 정부의 뜻이었으나, 그것을 벗어나 건설업의 업

무확장 방안을 내 놓으면서 국민의 동의를 구하자는 통과 요식행위라 하겠다.

이로 인해 부실방지책의 일환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을 추진함으로써 인한 가치 혼란을 누가 유발하고 있던 말인가?

특히 94년 문민정부 출범후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건설업의 경쟁력강화와 육성방안으로 설계업 확장을 목적으로 대형건설업체가 추진한 종합건설업 도입 문제에서 이미 설계·시공겸업 불가결정을 내렸고 건축설계분야는 기술이나 경제행위 이전의 건축문화행위로 공공성과 역사가 있음이 그 이유라고 분명히 결론지은 바 있다.

세계적으로 설계와 시공의 분리는 일반화되어 있고 부실을 막기 위해 서로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상호견제, 보완체제를 이루며 점점 전문화 하는 추세에 있다.

그런데 이같은 추세를 역행하여 창의력과 문화적 공공성 보다는 시공편의와 경제성을 우선하는 획일적인 경제논리는 반드시 경계되어야 한다. 그리고 설계겸업독점은 시공부실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지 못하고 또 다른 부실공사를 낳게 하는 것임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건축계의 설계·시공·감독 등에서 나타나는 사태는 단순한 업권 이익 다툼으로 볼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상업주의 패권자가 되려는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의 소산임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

기업의 이윤추구나 치열한 경쟁구조는 그 자체가 부도덕이거나 불법은 아니며 오히려 개방적인 태도는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물론, 생존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의 불미스러운 사태는 모든 원인과 책임이 부당한 이윤추구와 무소불위적, 불공정행위에 있는 것이지, 경쟁의 불가피성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분명한 것은 편중일관된 차별성을 구조적이란 일반화의 논리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는 마치 독재권력이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쥘취하여 국민을 위해서라고 할 때 일시적으로는 가능하겠으나, 그 후 국민의 합의 없는 독선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을 상기해야 한다.

정부는 하루 빨리 대기업의 문어발식 업무확장 기도를 차단하고 수 십년 설계기술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수 천개소의 중소 건축사사무소와 엔지니어링사에 획기적인 세제혜택과 지원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이렇게하여 앞으로 다가올 시장개방에 대처함은 물론, WTO 체제에 대응한 질높은 산업경쟁력을 갖추어 이 위기를 한국의 건설산업과 건축문화정립의 새로운 전기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모든 건설공사는 설계의 전문성, 시공의 전문성, 공사감독 체제의 업무한계를 분명히 하고 그 책임이 완전분리체제를 갖추어 부실시공이 방지되도록 각각의 체계를 법률적으로 그 책임과 의무의 한계를 보완하여 국민으로부터 공감미 가는 합의를 구해야 할

것이다.

## 우리의 나아갈 길

새로운 「建·基·法」 제정을 눈 앞에 두고

유경철 / 삼육건축

by Yoo Kyeong-Churl

건설교통부에는 “국토개발”과 “건설기술” 그리고 “교통” 등 3개의 연구원을 산하에 두고 있다.

이중 건설기술연구원에는 유일하게 건축과 건설 등을 전담하여 연구하는 10여개의 전문조직이 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건설업법 개정법률의 성안 과정에서 이 연구원이 소외되고 전문부서도 아닌 국토개발 연구원에서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까지 뒤로 제치고 공청회를 앞장서 주최하는 등 그 요식행위를 닦하기전에 그 뒤에 숨은 속내를 그냥 간과하기엔 너무나도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조짐이 발견되었다.

상기하기조차 참담한 일년 전 ‘삼풍사고’ 같은 국가 국민적 손실의 재발을 막기 위한 ‘부실공사 방지대책’이란 본래 취지를 왜곡하여 ‘건설업자의 불편 해소와 WTO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단순화이며 한국적 건설사업관리(C.M)다’ 라고 언제까지 우겨낼 것인가? 아직도 애꿎게 희생당한 500여 명명과 부상자 그리고 그 유족과 더불어 온 국민이 통탄해 마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징조는 이미 작년말 우리 협회의 안일한 대처와 건교부만 믿고 방심하고 있을 때 전격적으로 저질러졌다.

소위 “건설기술인협회”라는 급작스러운 협회를 발족시키면서까지 30여년동안 애쓰고 가꿔온 건축사와 그 보조사원 3만 여명의 기록을 하루아침에 몽땅 뺏길 위기에 처하게 하는 등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겪게하는 처사는 그 귀착지가 어딘지를 다시 한 번 살펴보게 한다.

과거 1, 2차 세계대전까지만 해도 선진열강의 추구는 바가 영토확장이었고, 그 이후 반세기를 경제경쟁이라 한다면 지금은 문명문화의 각축장임을 우리는 얼마전 세계각국에서 모여 치른 “애틀란타 올림픽”폐막식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2000년 차기 호주에서 개최되는 심볼이 종래의 캥거루라는 동물대신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로 되어 나래를 칠 때 온 지구촌 가족들은 열광하였다.

이처럼 21세기는 종합예술과 기술의 복합된 창조정신을 갖는 건축설계감리를 키워야 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건교부는 경제 원리를 앞세워 우리를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건설용역업자로 전락시키려 하는 발상에 대해 문민정부를 지향하는 현정부는 대답해 줘야 한다.

이보다 앞서 10년전 국민의 성금으로 지어진 ‘독립기

념관'이 불타올 때 이 나라의 건설부는 국민의 공복임을 벗어던지고 소위 '건설기술관리법'이라는 이 세상 어느 나라 어느 공무원 사회에도 없는 "한시적 책무가"가 어떻고 하면서 건축의 설계와 감리를 분리시켜 민간인들에게 관리감독권을 갖게 하고 탄 살림을 차려놓게 하였다.

그리하여 오늘날 건축사협회와 감리협회라는 서로가 어정쩡한 협회로 갈라서게 되었다.

그렇다면 행주대교 붕괴, 부산철도사고, 대구지하철 폭발, 성수대교 붕괴 등의 사고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하지 않은가! 공연히 국민의 혈세만 일년에 수천억씩 낭비하고 부족한 건축기술인만 동요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인 정건설기술자라는 편법까지 동원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와서 그들은 한국적 CM(Construction Management)에 끼어들어 특수목적 건축물의 설계도 덤으로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한 이번 사태에 침묵하고, 오히려 우리의 절대절명의 위기를 방관하며 어부지리를 노리고 있다.

지금의 건축사의 입지란 마치 "투우장에 끌려온 투우 아닌 한우" 꼴이 되어 설마 우리는 풀어주겠지 하고 협회에만 기대하고 믿고 싶어한다.

진부한 얘기지만 건축이란, 발주하는 건축주와 설계·감리하는 건축사, 그리고 이를 경제적으로 시공하는 건설업자의 상호견제·보완하는 삼위일체가 이뤄질 때 훌륭한 건축문화가 탄생되는 것은 동서고금의 지고지순한 원리이다.

우리들 건축사의 업무란, 계획·조사설계·구조설계·전기통신소방설비·감리 등 사회의 모든 것을 조화하고 서로의 설계를 조율하여 컨소시엄이 되어 이뤄지는 과정이며, 여기에 더하여 다양한 건축물인 주거·병원·교육·종교·판매·스포츠·레저 등으로 전문화 과정으로 전력을 다하고 있다.

하물며 건설회사에서 건축사·기술사 몇 명을 채용한다 해서 이 업무를 다할 수 있는 전지전능의 기구라고 말할 수는 없다.

더욱이 공사수주의 방편으로 건축설계가 전락되는 것보다 더한 이윤추구라는 대사명의 건설회사 생리에 휘둘려 반문화 반국민의 위험한 건물이 발생한다는 지금까지의 수 많은 설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건설산업의 헌법이라고 자처하면서 펼쳐 든 기본법의 근법취지와 온갖 협공방법의 다양성을 열거해보면

- 협회 설립 및 가입의 임의화(95 행정규제위원회 의결)
- 건설분야 경쟁 제한 개선방안(96 공정거래위원회 촉구)
- 건설회사가 설계·감리 용역업 수행 허용
- 건축사사무소 대표자는 건축사로 국한시키는 제도 삭제
- 건축감리 전문회사의 대표를 경력자, 기술자, 석박사도 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활동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우리들 앞에 전개될 사항들이며 가혹하게 괴롭힐 것이다.

지난 7월 16일 전기·통신·소방 협회가 연대하여 전국에서 2만여명이 과천 종합청사에서 이 법에 대하여 부당함을 들어 저지 투쟁하는 호소가 대통령, 국무총리, 건교부장관에게 전달되고 이 악법에서 빠져나오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 협회도 이를 타산의지식으로 삼아 최소한 회원들에게 알려나 주면서 건축사의 설계·감리의 권리를 사수하여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건설기본법안은 그 출발부터 이가 빠지고 절름발이며 도저히 국제상식으로도 통용이 아니될 또 하나의 입법안으로 본래의 취지인 단순화 작업과도 상반되는 궤도를 달리고 있다.

그러므로 건교부는 차제에 건설산업이니, 기본법이니 하는 언어의 유희를 걸어 치우고, 순수하게 '건설업법' 개정이라는 선에서 마무리 짓는 용단을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내려주기 바란다.

정녕, 권리나 자유나, 독립같은 것은 누가 그냥 주어서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여야 한다는 선현의 말씀이 요즘 더욱 더 우리에게 메아리쳐 온다.

## 늑대여! 다람쥐여! 토끼여! 노루여!

이충기 / 한때 건축

by Lee Chung-Kee

커다란 숲이 있었다. 그 숲에는 순한 동물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늑대가 섞여 있었다.

그 곳은 늑대들의 대장인 울프가 지배하고 있었으며, 숲 주위는 울프의 부하 늑대들이 보초를 서고 있었다. 숲의 식구들 가운데는 토끼와 노루, 다람쥐도 끼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람쥐가 친구인 토끼와 노루를 불러 모았다.

다람쥐 : 이보게 친구들, 저 늑대들이 지금이야 암전히 우리를 보호하고, 좀더 많은 새끼들을 낳는 조건을 만들어 우리 숲을 번창시키겠다고 말하지만, 틀림없이 나중엔 우리를 잡아먹고 말거야, 그러니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이 숲에서 빠져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노루 : 글썄, 원래 늑대란 족속은 별로 믿을 수 있는 짐승이 아닌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의심할 순 없는 일일세. 지금 그들은 다른 맹수들이 우리의 보금자리에 침입하는 걸 막아 주고 있고, 아직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고 있잖아. 근거 없는 의심처럼 해로운 것도 없다고 생각해. 나는 그들을 피해 달아날 이유를 찾지 못하겠네.

다람쥐 : 그렇다면 왜 그들은 우리가 숲 밖으로 나가는 걸 막고 감시하고 있지?

노루 : 그거야 우리가 흑시 밖으로 나갔다가 다른 맹수에게 잡아먹힐까 봐 걱정이 돼서 그런다지 않던가?

토끼 : 그거야 알 수 없지. 우리를 붙잡아 두기 위한 핑계일 수도 있으니까. 그들 말대로라면 밖으로 나가려는 동물들을 보호한다는 말인데, 밖으로 나가려다 걸리면 잡아먹는다고까지 하면서 그렇게 강제로 막는 건 아무래도 좀 수상해.

다람쥐 : 맞아! 그건 우리를 가둬 두기 위한 보조임에 틀림없어.

노루 : 아니 그렇다면 그들이 우리에게 가족을 맘 놓고 많이 낳으라고 권하면서 많이 낳은 동물들에게 상으로 맛있는 풀과 과일을 잔뜩 선물하는 친절은 뭐지? 그들이 흑심만 품으면 잡아먹을 수 있는 동물의 수도 늘고, 잡아 먹기도 훨씬 유리해서 그런 게 아닐까?

노루 : 토끼 군, 자네는 언제나 그런 식으로 의심만 하지. 사물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다람쥐 : 아니, 내 생각도 토끼와 같아! 이젠 커다란 비극이 준비되고 있는거야! 오늘 밤 우리 가족과 함께 이 숲을 빠져 나가겠어.

토끼 : 신중해야 해! 그러다가 보초에 걸리면 잡혀 죽을 거야. 게다가 오늘은 보름이라 달빛이 유난히 밝단 말이야. 혼자라면 모르겠지만 가족들이 모두 움직인다면 동작이 느껴 잡혀 죽을 가능성은 더욱 커지지 않을까?

다람쥐 : 물론 자네 말대로 신중해야 해. 하지만 아무런 위험도 무릅 쓰지 않고 어떻게 탈출할 수 있겠어? 그런 결단과 용기가 없다면 언제나 탈출할 가능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지.

토끼 : 여러 가지 가능성과 위험에 대해 충분히 의심하고 생각해야 해. 그렇지 않고 탈출하는 것은 무모한 짓이야.

다람쥐 : 그럼 자네는 무슨 대책이 있나? 덜 위험하거나 확실히 안전하게 탈출할 방법 말이야.

토끼 : 아니, 뭐 그런 건 아니야.

다람쥐 : 그럼 우리와 함께 탈출하겠니?

토끼 : 글썄... 도망친다고 좀더 나은 숲이 있다는 보장도 없고, 그 숲에 늑대보다 더 나쁜 짐승이 없다는 보장도 없지 않아? 게다가 탈출하다 잡히면 울프 부하들의 밥이 될 가능성도 있고 또 우리들이 울프를 믿지 못하고 도망치려 한다는 인상을 주어 그를 난폭하게 만들 수도 있고...

다람쥐 : 모든 걸 의심해 보는 자네의 태도는 훌륭하네. 그렇지만 단지 의심만 하는 것은 의심을 위한 의심에 지나지 않지. 그것은 우리를 소심하고 우유부단하게 만들 뿐이야. 행동하려는 의지, 올바른 것을 찾아내고 건설하려는 확고한 의지가 없다면 의심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함정이 되고 만다네.

토끼 : 글썄. 내겐 자네 말이 매우 성급하고 독단적으로 들리네. 확실한 판단을 위해선 근거가 충분해야 해. 그리고 확실한 것만이 성공을 보장하지. 그런데 자네의 계획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것 같네. 어쨌든 나로선 아직 도망쳐야 할지 아닐지를 확실하게 판단하지 못하겠네.

다람쥐 : 아직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은 건 사실이야. 그건 며칠 더 조사를 해서 꼼꼼하게 세우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탈출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느냐는 걸세. 그래야 계획도 세울 수 있으니 말일세.

토끼 : 도망칠 생각을 하기에는 다시 생각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네. 나는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하고 싶네.

노루 : 난 도망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네. 자네도 무모하게 행동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지냈으면 좋겠고.

다람쥐 : 신중함이 계획과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네. 하지만 신중함이 탈출해야 한다는 목적을 아예 뒤집거나 할 순 없는 걸세. 신중히 준비해서 기어코 나는 이 곳을 벗어날 생각일세. 자, 잘들 있게!

다람쥐는 며칠 동안 신중히 준비하여 면밀한 계획을 세웠고, 가족들과 함께 늑대들의 감시를 뚫고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다. 토끼는 노루와 함께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2년쯤 지나 다람쥐는 그 숲 소식을 들었다. 늑대들이 순번을 매겨 모든 동물을 하나씩 하나씩 제물로 잡아 먹고 있다는 것을, 또 그 숲의 모든 동물을 일 년에 일정한 수 이상의 새끼를 낳지 못하면 순서에 앞서 잡아먹힌다는 소식도 함께. 그리고 자기 친구들 역시 그 비극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모두 잡아먹히고 말았다는 소식을 듣고 다람쥐는 너무도 안타까워 엉엉 울고 말았다.

모든 것을 의심하자는 자못 철학적 구호의 예문에 불과한 이 우화는 '건설산업 기본법' 제정에 당면한 오늘의 우리 '건축사' 들에게 주는 의미심장한 교훈에 다름아닐 것이다.

이 글에는 두가지의 의심이 나온다.

하나는 토끼의 의심이고 하나는 다람쥐의 의심이다.

토끼의 의심은 단지 의심만 할줄아는, 의심하기 위한 의심이, 실천은 가로막는 '회의주의'의 의심이다. 이것은 결국 표면적으로는 상반된 의심할줄 모르는 노루와 같은 운명에 놓이고 만다. 반면에 다람쥐의 의심은 실천하기 위한 의심이며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의지를 바탕으로 한 의심이다.

물론 막연한 '의심하기'는 의심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그것이 '의심하지 않기'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실천하려는 강한 의지를 갖추고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반대로 실천의지가 결여된 의심이란 운명이 겨룬 총부리에 떠밀려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무력한 신앙이 될 뿐이다.

그렇다면 대체 누가 이 무력한 상황을 저지하고 구원해 줄 수 있단 말인가! 다람쥐의 의심을 가져야 할 나, 곧 우리 자신이 아니라면 말이다.

나는 아니 우리는 안다. 커다란 숲이 어디며 늑대와 다람쥐, 토끼, 노루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그 숲이 어떠한 환경이 되어야 하며 지금 내가 어느동물 일진대, 앞으로 어느 동물이 되어야 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늑대여!

다람쥐여!

토끼여!

노루여!